

불공정한 우유 덤핑판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5월 9일(화), 10일(수) 유가공업체 협조방문 결과 -

-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5월 9일(화), 10(수) 양일간 서울 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하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유 덤핑판매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 위원회 대표단은 유가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유통점에서 만연되고 있는 우유 덤핑 판매로 인해 우유 가치 몰락은 물론 그로 인한 손실은 농가가 결국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그 원인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아니라 유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덤핑판매가 조장되고 있다면 이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유업체간의 적극적인 공정거래를 통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 이에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에서는 앞으로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유 덤핑판매의 병폐에 대해 유가공업체 역시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소비확대 측면이나 기업이윤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임을 인정하였다.
- 하지만 대형유통점에서의 타유업체와 경쟁 및 유통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유업체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이와관련한 위원회측의 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였다.
- 그러나 매일유업측에서는 서울우유, 남양유업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영업전략 차원에서 재고소진, 대형유통업체의 요청 등 경우에 따라 수시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우유 덤핑문제는 생산자와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위원회측에 전달함으로써 해



결의지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 한편 김태섭 청년분과위원장은 금번 유가공업체 방문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해 최근 덤핑판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유통업체 대응활동에 앞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위원회측에서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형유통업체 및 비협조적인 유업체를 상대로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우유 덤핑판매 중단 요청

-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지난 5월 19일(금) 대형유통업체에 우유 덤핑판매 강요 자제 및 우리 우유의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해 힘써줄 것을 공문 발송을 통해 공식으로 재차 요청하였다.
- 청년분과위원회는 대형유통점에서의 우유 끼워팔기, 미끼상품 판매 등으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덤핑판매가 만연되고 있고 이를 조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 전국의 낙농가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강력히 전달하였다.
- 또한 낙농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요기간 산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서의 덤핑강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 아울러, 우유 덤핑판매로 국민 건강증진에 중요한 우유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이윤만을 살찌우는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마진과 덤핑규모가 클 수록 그 피해는 낙농가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가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식량인 우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10일 방문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에 유가공업체간 공정거래를 통해 덤핑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